

# 마마무 휘인 · 조현아 · 핫펠트 女솔로 삼파전



거물급 여자 솔로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한다. 조현아, 핫펠트(에은), 마마무 휘인이 그 주인공. 장르도 목소리도 제각각인 세 아티스트의 컴백 소식에 가요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조현아와 휘인은 솔로로서 첫 발을 내딛는 컴백이다. 각각 어반자카파, 마마무로 활동하며 음원 차트를 섭렵해왔기에 솔로로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세 아티스트가 음원을 선보이던 날부터 홀로서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당당한 여성을 노래하며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보여준다.

## ■ 마마무 아닌 솔로 휘인, 그가 선보이는 힙합곡은?

첫 타자는 마마무 휘인이다. 17일 오후 6시 'EASY'를 발매하며 본격

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EASY'는 마마무와 최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박우상 프로듀서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R&B 힙합 장르곡이다.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비트가 인상적인 노래다. 휘인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유려한 가창력이 더해져 강한 중독성을 자아낸다. 특히 대체로 떠오른 래퍼 스키이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듣는 재미를 더해

## 장르 · 목소리 제각각...가요계 이목 집중

## 조현아 · 휘인, 솔로로 첫 발...궁금증 증폭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양보와 배려를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가사와 사랑에 무심해진 남자로부터 홀로서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당당한 여성을 노래하며 한층 더 깊어진 음악적 색깔을 보여준다.

휘인이 데뷔 4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 건 솔로 앨범인 만큼 앨범 전반 디렉팅에 참여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또 자켓에 있는 배경의 페인팅 작업부터 피처링 섭외, 사진 작가 섭외와 후반 작업까지 자신만의 색깔을 고스란히 녹여냈다고. 휘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결과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된다.

## ■ 조현아 감성보컬 지존의 컴백, 곡진언과 호흡은?

조현아는 휘인 컴백 바로 다음날

출격한다. 18일 오후 6시 솔로 싱글 앨범 '그대 떠난 뒤'를 발매한다. 타이틀곡 '그대 떠난 뒤'는 작곡가 1105의 작사 작곡, 서원진이 편곡에 참여했다. 수록곡 '러브레터'는 조현아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했다. 여기에 가수 곡진언이 피처링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두 곡 모두 조현아의 감성보컬과 잘 어울리는 이별노래다.

조현아는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메인보컬로 지난 2009년 '커피를 마시고'로 데뷔했다. '혼자', '봄을 그리다', '코 끝에 겨울, 복요일 밤' 등 수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실력을 입증 받은 인물이다. 솔로 첫 행보에선 또 어떤 감성곡으로 보심을 자극할 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 핫펠트(에은), 싱어송라이터로

## 발돋움...그가 풀어낼 너의 이야기

핫펠트(에은)도 조현아와 함께 컴백한다. 18일 새 싱글 앨범 '다이너' (Deine)를 발매하는 에은은 아메바 컬처 이적 후 두 번째 행보에 나선다. 타이틀곡 '위로가 돼요 (Pluhmm)'의 구체적 장르와 콘셉트는 베일에 싸여있는 상황.

핫펠트는 지난 10월 앨범 '미네' (MEINE)를 통해 '나'에 대한 솔직한 스토리를 풀어내며 많은 팬들의 공감대를 자아낸 바 있다. 이번 '다이너'에서는 '위로가 돼요 (Pluhmm)'와 'Cigar' 2개의 트랙으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핫펠트는 10여 년간 그룹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2014년 핫펠트란 예명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첫 솔로 앨범을 전부 자작곡으로 채웠을 만큼 싱어송라이터로서 뛰어난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신보에선 또 어떤 음악으로 놀라움을 안겨줄 지 이목이 쏠린다.

## '미스트리스' 예고편, 미스터리의 서막



OCN 오리지널 '미스트리스' (극본 고정훈, 김진욱, 연출 한지승 총 12부작)의 미스터리 서막을 알리는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다. 한기인, 신현빈, 최희서, 구재이, 그리고 육조 속 의문의 시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는 28일 처음 방송되는 '미스트리스'는 비밀을 가진 네 여자와 그들에 얽힌 남자들의 뒤얽린 관계와 심리적인 불안감을 다룬 미스터리 판능 스릴러다. 평범한 카페주인, 정신과 의사, 교사, 로펌 사무장 등 네 명의 여성들이 일련의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연애시대' 등 웰메이드 드라마를 탄생시켜온 한지승 감독의 첫 장르물 도전작으로 영화 8월의 일기 '시간이탈자' 등의 고정훈 작가와 3월 말 크랭크인한 영화 조선훈 감독 김진욱 작가가 공동 집필을 맡았다.

"우리는 어젯밤 한 남자를 죽였다"는 메시지와 함께 죽은 남자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로 강렬하게 포문을 연 메인 예고 영상. "왜 그렇게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라는 김은수(신현빈 분)의 물

음에 "죽여버리려고요"라며 정색하는 차진호(정기갑 분), 장세연(한기인 분)의 전화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상훈(최희서 분)을 주시하는 권민규(지일주 분), 의문스러운 표정의 황동석(박병은 분) 등 네 여자의 주변인인 이들 중,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어 "우리 이제 어떡하자?"라는 말에 "번져 치워야 되지 않을까 저거"라며 어느 한 곳을 응시하는 세연과 고민에 빠진 은수, 큰 선글라스로 정체를 감춘 화연, 멍하니 학교 복도에서 서 있는 정원의 모습이 등장한다. 네 친구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대목.

특히 "바음 단단히 먹어. 저 남자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라는 세연의 단호함 아래 어두운 계단을 툭툭에 의지해 내려오는 네 친구와 그들의 시선이 쏠린 육조 밖으로 나온 다리 하나로 인해 긴장감은 최고조로 오른다. 네 친구가 "더 완벽하게 감춰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한편 '미스트리스'는 지난 2008년 영국 BBC에서 방송된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으로, 2013년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 될 정도로 탄탄한 작품성을 자랑하고 있다. 원작에서 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민을 가져왔고 여기에 OCN이 탄탄하게 쌓아온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장르물적 해석을 덧입혀 차별화된 이야기와 독특한 매력을 선사할 전망이다. '작은 신의 아이들' 후속으로 오는 4월28일 처음 방송된다.

## 성범죄 다룬 '나를 기억해', 영화 그 이상의 의미



극장가를 뒤흔들며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나를 기억해'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나를 기억해'는 '도가니' '한공주'를 표방하는 주제를 갖는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방 범죄, 촉법소년까지 무거운 소재로 아우른다.

극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무겁다. 중간중간 김희원(국철 역) 특유의 재치로 잔잔히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소재의 특성상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는 전개가 대부분이다.

한서린(이유영 분)은 독립하려 하는 마음과 의존해야 하는 현실, 두 가지 양상과 마주한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현재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힘은 너무나 약하다. 그렇기에 국철은 그가 쓰러지지 않게 등을 받쳐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그 과정에서 관객은 성장하고 극복하는 캐릭터를 응원하게 되지만 한서린은 끝내 불안정한 상태로 행

동하며, 보는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낸다.

한서린의 약점은 타인에 의해 벌어진 과거의 상처를 망각이라는 장치로 봉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봉합된 상처는 극복과는 거리가 멀어 다시 벌어진다.

한서린은 여전히 아파왔고, 제2의 한서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이 과정은 한서린이 판단을 서두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그의 서투름이 극 전개와 개인의 상처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아쉽다.

극 중 한서린은 도덕을 가르치는 데 때마침 학생들에게 '성악설'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청소년 범죄를 설명하기에 꽤 용이한 논리다. 관객들은 그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며 여러가지 교훈을 전달 받는다.

극의 엔딩은 단조롭고 평이하다. 반전의 요소가 꽤 많은 이야기 형태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이다. 분노에 찬 인물들의 과도한 권선징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확실한 장점이자 단점이다.

작품은 카타르시스와 거리가 멀다. 나쁜 이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결말을 기

대한 이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 현실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이야기를 녹여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 실제 우리의 현실은 드라마틱하게 정의롭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유트피아보다 현실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보는 이들은 사회에 민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간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문제화됐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국내의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마땅한 대응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나를 기억해'는 시사점을 던졌고 관객들은 바깥으로 눈을 돌려 현실로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

## '시골경찰3' 울릉도→포항 불시착에도 순조로운 출발

'시골경찰'이 포항 시민들과 만나며 새로운 시즌의 출발을 알렸다.

16일 저녁 케이블TV MBC에브리원 '시골경찰' 1회가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울릉도 근무를 위해 경북 포항으로 떠난 신현준 이장진 오대환 이청아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골경찰'은 연예인들이 직접 시골 마을 치안센터의 순경으로 생활하며 모든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시즌2 전라북도 진안, 시즌2 경상북도 영주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울릉도 섬 마을을 찾아 무궁해 청정 울릉도 라이프를 선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신현준 이장진 오대환은 터미널에서 막내 순경 이청아를 만났다. 생각지도 못한 막내 여순경의 등장엔 놀란 것도 잠시, 네 사람은 풍랑주의보로 인해 울릉도로 향하지 못하는 비상 사태를 맞았다. 결국 이들은 제자 진이 준비한 2인용 배를 따라 포항 해파골소로 임시 발령을 받게 됐다.

포항은 그간 '시골경찰' 멤버들이 거쳐온 시골 지역들보다 훨씬 큰 마을이었고 사건 또한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시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 '시골경찰' 멤버들은 시민들에게 웃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의욕적으로 순찰에 나섰다. 이들은 지진 피해 아파트들을 순찰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절도 사건과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긴급 출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초 계획대로 울릉도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네 명의 '시골경찰'은 임시 근무지인 포항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과 마주했고, 교통사고로 놀란 시민의 마음을 달래는 등 마을 주민들과 교감하며 따스한 힐링을 선사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시골경찰' 특유의 색채가 첫 방송부터 진하게 묻어났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음력 3월 3일)



▶**복록** 육체의 흥터는 나를 수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운 법이다. 기, 리, 천, 후 성씨 마음의 화를 풀고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4, 5, 7월생 자녀의 어려움은 부모가 사랑으로 대화하면 해결될 수 있다.



▶**사계** 4, 6, 7월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면 좋으려만 산 넘어 산이니 정상이 보이지 않는구나. 변칙을 하면 어떨지. 사, 천, 후 성씨와 동업하면 가능할 듯하다. 부부가 뜻을 합치면 한층 좋아진다. 기본상 한 잔을 하는 것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라.



▶**황생해역** 2, 4, 6월생 서쪽과 북쪽의 이력서 불인 곳에서 오전에 반가운 소식이 온다. 기, 리, 천, 후 성씨 신경전은 그만두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 끌다 평도, 답도 다 놓친다. 사업가에게는 더욱 중요한 날이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올린다.



▶**계축** 떡잎을 보면 그 나무 성질을 짐작할 수 있듯 사, 후, 후 성씨 직장인은 확실한 업무 처리로 상사 눈에 띄었다. 본인 관리에 힘쓰라. 주위 시선이 나만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라. 병원 문을 두드려 종합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용띠** 기, 리, 천, 후 성씨 사회의 좋은 풍토라면 과감히 반아들이라. 도전은 자신을 발전시킬 발판이 된다. 2, 5, 8월생 친형제 사이라도 금전 관계로 시비가 있겠다. 한 보 양보하는 것도 상책이다. 서쪽이 길하고, 파란색이 행운의 색깔이다.



▶**진띠** 기, 리, 천, 후 성씨 새로운 길에서 스타트를 잘 해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법이다. 용기 있게, 과감히 나를 던지라. 힘든 일이 있다면 주위 선배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5, 7, 9월생 용, 원숭이, 닭띠는 일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말띠** 4, 6, 8월생 옛 일이 갑작스레 보고 싶은 날이 될 듯. 애인이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리, 천, 후 성씨 동쪽과 서쪽에서 사업 자금 마련을 도와줄 자 나타난다. 그러나 덤벼 보면 후날 역운이 서리니 현명하게 판단하라.



▶**양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듯하나 내 능력을 알아야 한다. 4, 10, 12월생 소신껏 한 가지에만 열중하는 추진력을 보강해야 좋겠다.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애정도 사업의 일부라 생각하고, 작전과 지휘로 상대를 사로잡으라.



▶**용생해역** 민연된 임도 배신할 수 있다. 기, 리, 천 성씨 민 도끼에 발동 찍히지 말고, 선수를 치라. 과감히 도전하는 자만 승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2, 9, 11월생 내 사업을 변동하기엔 아직 이르다. 허황한 꿈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계축** 잘 아는 길이라도 무서울 때가 있는 법이다. 3, 4, 6월생 여성은 밤길을 조심하고, 일찍 귀가하라. 애정도 나를 지나치면 임이 떠난다. 사탕발림 연행에 넘어가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기, 리, 천, 후 성씨 투자하려면 서적, 저물 쪽에 하라.



▶**계축** 기, 리, 천 성씨 사업이 잘 된다고 안주하는 것은 미래의 문을 잠가버리는 행위다. 더욱 새롭게 구상에 대처해야 한다. 1, 5, 12월생 불의의 사고를 막자. 주변을 잘 살피고, 자가 운전자는 가끔적 차를 두고 퇴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계축** 기, 리, 천 성씨 투기는 삼가라.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가정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참고로, 음식로풍업은 운수 대통한다. 5, 8, 11월생 순간적인 실 탓에 후회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 매사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 북쪽 사람이 힘이 돼준다.